

# 김영록 지사 “순천, 남중권 경제 선도 거점 육성”

# NEWS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 정책비전 투어... 생태관광 허브 조성 등 7개 비전 제시 “전남도·순천시 협업... 건의사항 전폭적 지원 나설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 순천을 첨단기술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비전 투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 비전 투어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서동욱·한숙경 전남도의원, 지역민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대신 출마라는 큰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 호남의 자존감을 높여줘 감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원하는 있는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다”며 “전남도의 지원을 통해 순천시가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우주·방산 산업 등 미래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동부권의 경제·문화·행정 거점인 순천은 지역 강소도시의 새 패러다임을 창출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그려 나가고 있다”며 “새롭게 열릴 글로벌 남해안 시대에 순천이 주축이 돼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하며 전

남도도 지원하기 위해 힘껏 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엔 ‘문화, 우주·방산, 바이오 3대 경제축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순천’을 주제로 미래 지역발전 7대 비전을 제시했다.

7대 비전은 △세계 유일 내륙 정원과 해양정원을 모두 품은 글로벌 생태수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비상하는 남중권 신(新) 경제거점 △글로벌 문화콘텐츠 선도 ‘K-에니툰 벨리’ △고품격 웰니스 관광문화 도시 △스마트 혁신농업 대전환 △소득 5만불 시대 선도 대한민국 명품 정주도시 △남해안 시대 중심축 남부권 교통 허브 등이다.

글로벌 생태수도를 위한 정책으로는 글로벌 해양생태공원과 동천하구습지 복원 생태로드 조성, 세계자연보전총회(환경올림픽) 유치 추진 등이 제시됐다.

남중권 신(新) 경제거점을 위한 우주·방산클러스터 구축, 이차전지 생산기반 구축, K-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이 제안됐다.

K-에니툰 벨리를 위해서는 에니·웬튼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기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 분원 유치, 문화콘텐츠 1000억원 펀드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순천시 정책비전 투어’ 토론을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품격 웰니스 관광문화 도시 실현에는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역사관광 특화, 말산업 육성 등이, 스마트 혁신농업 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도농 복합도시 투트랙 스마트팜 확산, 최첨단 기술 활용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등이 제안됐다.

미래문화관광특구 조성, 경전선 페션 북지 세계적 수변문화·관광명소 조성 등이, 남부권 교통 허브 실현을 위한 수도권-영호남 경제축 연결 메가 철도망 구축, 동부권 관광·물류 도로망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 현안 토론회에서 지역민들은 소규모 스마트팜(큐브형) 구축 지원, 꽃

육묘장 스마트 온실 구현 및 자동화 지원, 순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지원, 지역식물원관찰센터로 지정된 성가롤로병원 인프라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 순천시와 협업해 전폭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시민 2000명에 나무 나눔 시, 17~20일 선착순 예약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구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나누는 나무는 비파나무, 후피향나무, 자염국수나무 3종이며, 시민 2000명에게 3주씩 나눠준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에 앞서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나무 나누어주기’ (https://naver.me/5jRzTUb)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하며, 당첨자는 21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4일부터 29일까지 호남조경수유통센터(서구 서창동길 322)에서 신청한 나무를 수령하면 된다. 단 전화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이면 짝수일에 교환하면 된다. 28일과 29일에는 전화번호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행사장 안전을 위해 한국조경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가 수목 배부와 행사장 질서 유지 등을 지원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전남, 기회발전특구 인재 양성 본격화

### 시·도, 산자부 공모 선정... 실무형 교육 등 진행 시·이차전지·해상풍력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첫 국가 공모사업이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광주시는 총 사업비 3억2000만원(국비 2억2000만원, 시비 1억원)을 투입, 빛그린국가산단 모바일티투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특구 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지원 규모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15개사, 신규 및 재직자 160여명이다.

광주의 대표산업인 모바일티와 인공

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수준별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또 기업 채용계획과 연계한 신규 인력양성 과정도 마련해, 교육 수요자들이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6일 빛그린국가산단 모바일티투특구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특구 등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올해 총 6억원(국비 4억·지방비 2억)을 들여 이차전지 기업 신규 취업 및 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

고, 내년부터는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수소 등 5개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 기관인 전남여성수학융합원은 재직자 교육, 광양만권인력양성사업단은 신규자교육을 맡아 이차전지 소재와 공정 과정, 분석장비 활용, 생산설비 관리과정 등 기업수요형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공모 전에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이차전지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개별 컨설팅과 같은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인력양성 세미나 개최, 기업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취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 취업 성공률을 높일 방침이다.

전남도는 5개 시군 125만평에 이차발전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소 등 5개 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속해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도, 글로벌 해운·해양생태 강화 3630억 투입

### 스마트항만 건설 등 6개분야 75개 사업

전남도가 글로벌 해운·항만 육성과 깨끗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스마트항만 건설, 해상교통망 확충,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체계적 갯벌관리 등 6개 분야 75개 사업에 3630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후계 어업인 육성 및 수산경영 대학 운영 등 11개 사업에 2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을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울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항을 서남권 핵심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표신항 진입도로 건설, 5만t급 자동차 부두 확충 등 24개 사업에 22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완도항과 평결항 등 지방관리 항만 9곳에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 지방항만 육성을 위해

430억원을 지원한다.

해상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섬 주민 전용 여객선 운임지원,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254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해양생태계와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 복원 등 444억원을 투입해 연안 해양생태계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역 해운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AI 해상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200억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비 지원 200억원 등 신규사업 8건 총 2173억원 규모를 발굴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